

제 210호 · 2013년 6월 26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임진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아프리카 물류 시장의 잠재적 성장력

물류정책·사업동향

1. 머스크라인, MSC, CMA CGM 3사는 P3 공동운항 네트워크 결성
2. DHL, 중국 서부지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3. 중국 하얼빈시에 농산품 물류허브 구축
4. Norwest Venture Partner, 인도 콜드체인 물류회사 Snowman에 지분투자

물류시장동향

1. DP World, JNPT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MOU 체결
2. FedEx, Supaswift의 아프리카 내 운영사업 부문 인수계획 발표

공지사항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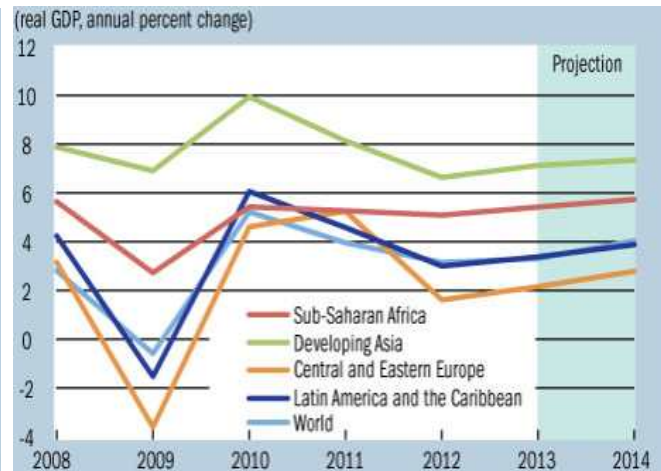
□ 아프리카 물류 시장의 잠재적 성장력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성장이 소폭 상향 추세임
 - 소비인구수가 약 10억 명인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성장속도는 세계경제 성장속도보다 다소 높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013-2014년 경제 성장률은 약 5.5%로 전망되며, 이는 2012년의 5% 성장률 보다 높은 수치임
 - 아프리카 중소득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불안정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정상화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IMF는 향후 5년 이후 아프리카의 성장률이 아시아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¹⁾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군의 성장을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기타 권역의 성장률 >



자료 : IMF, Sub-Saharan Africa Builds Momentum in Multi-speed World, 2013.5.10.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항만에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는 물류기업으로는 허치슨, DPW, APMT나 아프리카 현지 물류업체인 Bollore Africa Logistics²⁾, Grindrod³⁾ and Transnet⁴⁾ 등이 있음
 - 아울러 아프리카 개발에 초점을 맞춘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항만 건설 및 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

1) IMF, Sub-Saharan Africa Builds Momentum in Multi-speed World, 2013.5.10.

2) 프랑스의 Bollore Group의 계열사로 아프리카의 항만 및 철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3)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물류기업으로 해운, 트레이딩, 파이낸스 업무까지 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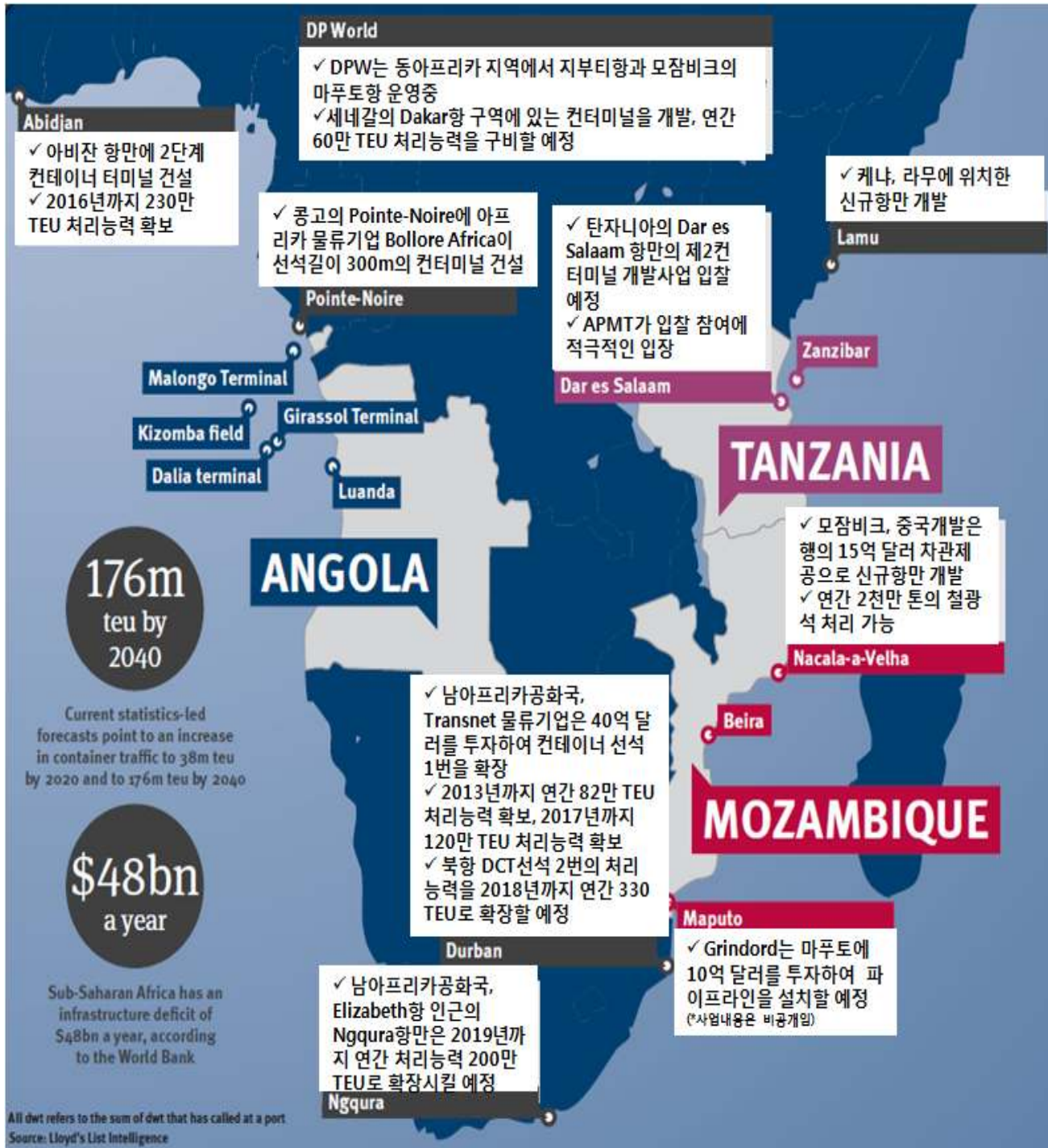
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종합물류기업으로 준공기업임

- 그 예로 중국개발은행은 모잠비크 정부에 15억 달러 차관제공을 하여 연간 2천만 톤의 철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Nacala-a-Velha 심수항을 개발
- 이처럼 글로벌 운영사들은 아프리카의 향후 발전 잠재 능력을 예상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
- 아프리카 54개 국가는 전 세계 국토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 하지만 세계 GDP 생산의 2.5%밖에 담당하지 있음
 - 아프리카의 인구는 2040년까지 약 18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중국 인구 증가율을, 2030년에는 인도의 인구 증가율 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의 복합물류 회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아프리카 주요 항만 물동량은 연간 6~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이외에 탄광 프로젝트 항만 및 원유 처리 항만은 연간 5.8~7.8%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항만과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의 Tema와 Lagos 항만, 동아프리카의 Mombasa항만,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항만은 이미 확장을 완료함
- 아프리카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0년까지 평균 10.6%로 성장하고 2020년부터 2040년까지는 7.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현재 물동량을 기초로 예상 물동량을 추정해보면 2020년까지 약 3,800만 TEU가 처리되고 2040년까지는 1억 7,600만 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벌크 물동량은 철광석과 보크사이트 개발에 따라 성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아비잔항의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연간 230만 TEU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¹⁾
 - 현재 처리능력은 80만 TEU임
- 탄자니아의 Dar es Salaam 항만의 2단계 컨테이너 개발 사업 입찰에 APMT가 참여 희망을 밝힘
 - 현재 허치슨이 탄자니아의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케냐는 라무에 신규 항만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항만을 통해 수단과 에디오피아 시장에 접근하는 물류회랑의 한 축으로써 발전시킬 예정

1) 아비잔항의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은 APMT와 Bollore Africa Logistics가 컨소시엄으로 21년의 운영권을 획득했으며, 총 5억9천만 달러를 사업에 투자할 예정임(2013. 3.22.)

- 남아프리카 Durban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사업에 대해 Transnet이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3년까지 처리능력은 82만 TEU까지 증대시키고 2017년까지 120만 TEU로 확대시킬 예정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항만 개발 진행 내용 >



자료 : www.lloydslist.com, 2012.7.12.

- 허치슨이 운영하고 있는 탄자니아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인 Neville Bissett는 아프리카의 성장발전 이면에 고려되어지는 리스크가 공존하는 것을 강조
 - 외국투자자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 할 것을 제시
 - 아프리카는 “차기 투자지”로써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구수를 바탕으로 하는 매력적인 투자 지역임
 - 그러나 아프리카의 인프라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예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아프리카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하여 사업진행 처리속도가 더디며 부족한 시장력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당부
 -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투자이후 단기적으로 20~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함을 강조
 - 아울러 정부와 사업 협상 시 양측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모색해야 사업 진행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음을 언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소가 많은 만큼 기대 이익도 높은 아프리카는 아직 기회의 땅으로 특히 항만과 기타 인프라 사업이 다소 유망함을 언급

자료 : A special report from Lloyd's List, AFRICA PORT & LOGISTICS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물류정책·사업동향

□ 머스크라인, MSC, CMA CGM 3사는 P3 공동운항 네트워크 결성

- 글로벌 컨테이너 빅3 해운선사인 머스크라인, MSC, CMA CGM S.A.는 P3 네트워크를 설립하기로 합의
 - P3 네트워크는 아시아~유럽간, 범태평양간, 범대서양간 항로에 투입된 이들 3사의 선박들로 구성됨
- 이들 3사(파트너)는 이 세 개 항로에 투입된 모든 선박들을 공동선박운영센터(JVOC, Joint Vessel Operating Center)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임
 - 파트너들은 독자적으로 판매, 고객서비스, 마케팅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
 - 파트너들은 P3 네트워크에 투입된 선박들을 계속 소유/용선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함
- JVOC는 현재 각사의 수송능력을 기초로 P3 네트워크에 255척을 투입하여 약 260만 TEU를 처리할 예정
 - 머스크라인은 Triple E-Vessel을 포함하여 이 중 약 42%인 110만 TEU를 운영할 예정임
 - MSC는 약 34%인 90만 TEU, CMA CGM는 약 24%인 60만 TEU를 처리할 예정임
- P3 네트워크는 서비스 지역 및 운항 빈도 개선, 고도의 네트워크 안정성을 통해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또한 P3 네트워크는 대규모 선박들을 운영함으로써 파트너들의 선박 이용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임
- P3 네트워크 협정문은 올해 4사분기에 서명될 것이며, 2014년 2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운영을 위해서는 당국의 관련 규정 승인이 필요하므로 출발 시점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머스크선사의 무역 및 마케팅 담당인 Vincent Clerc은 P3 네트워크를 통해 머스크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함

자료 : www.shippingwatch.com/www.maersk.com, 2013.6.18.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DHL, 중국 서부지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 DHL은 중국 내륙지역 진출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유익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 정책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비용(주로 인건비와 부동산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부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음
 - 그러나 만약 물류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여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서부로 이전한다고 해도 기대했던 만큼의 가치사슬 효율화를 실현할 수 없음
- DHL은 중국 서부지역의 고객을 세계 기타 지역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 및 철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에 제공될 다양한 사업서비스를 통합할 예정
 - 2012년 DHL의 아시아 지역 매출은 DHL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중국이 반 이상을 차지함
 - 중국 물류시장의 지속적인 견인 하에 DHL의 아시아 매출 비중은 향후 5년 안에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혁신과 짧은 제품 수명주기, 신규 판매 채널로 특징되는 첨단기술 분야는 DHL의 중국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주요 성장분야 중 하나임
 - 중국의 IT 제조업¹⁾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DHL은 Door-to-More²⁾와 같은 직배송 서비스 및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한 솔루션을 개발함
 - DHL은 올해 IT 하드웨어 분야 성장의 60%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분야의 성장에 힘입을 것으로 예측함
 - 물류적 관점에서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제품 크기의 축소로 대변될 수 있고, 이는 한번의 수송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제품의 단순화 및 경량화 경향은 가격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기술 공급 사슬(technology supply chain)의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도전을 주고 있음
 - 그에 따라 공동물류 플랫폼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DHL은 연간 지출의 20%를 이러한 IT 솔루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
- 중국의 전자상거래 붐 역시 DHL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 최근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 Ltd)의 결정은 DHL에 있어서는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의 확대를 의미함

1)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쓰촨(Sichuan)성 청두(Chengdu)시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부상함

2) Door-to-More는 DHL의 유럽 운송 네트워크 역량과 대륙간 화물 운송 시스템을 결합하여 마켓 접근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 또한 절감해 주는 서비스로, 단일 공급자를 관리함으로써 전세계 어떤 곳이라도 배송을 가능하게 하며 이 시스템에는 개별 시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주는 부가가치 옵션도 포함되어 있음

-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과거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었던 DHL의 100대 거래처에 중국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영기업부터 개인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눈을 뜨고 있으며, DHL은 이들의 국제 물류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DHL은 2013년부터 기체확장형(wide-bodied aircraft) 기종을 도입하여 아시아 주요 시장과 미주를 직접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상하이를 아시아 최대 특송허브로 론칭하기 위해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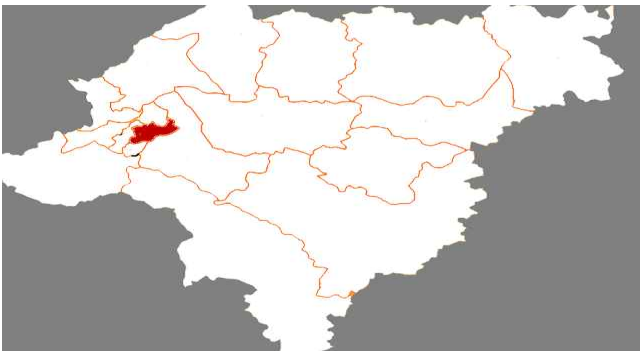
자료 : www.chinadaily.com.cn, 2013.6.19.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중국 하얼빈시에 농산물 물류허브 구축

- 제24회 하얼빈국제경제무역협의회에서 인합투자주식유한회사(人和投资控股股份有限公司)와 하얼빈시의 XiangFangQu(香坊区)정부와 흑룡강 지역에 Dili농산물센터(地利农产品物流中心) 설립 협약을 체결
 - XiangfangQu는 하얼빈시에 속한 구 단위 행정지역임
 - 인합투자주식유한회사는 약 200억 위안(한화 약 3조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
 - 투자에는 센터설립을 포함한 배후도로 정비 내용도 포함됨
 - 센터 설립의 효과로 흑룡강성(省)의 일자리 해결 문제와 흑룡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집하가 이루어지면서 손쉽게 농산물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
 - 센터 면적은 2km² 정도이며 완공 이후 센터에서 이루어질 농산물 교역액은 연간 500억 위안 이상을 예상함
- Dili농산물센터에는 농산물 매매 이외에 농산물가공 및 배송구역, 동북아냉장물류교역과 지방특산물 판매 구역 등을 포함
- 본 계획에 따라 농산물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Dili농산물센터가 동북아지역의 최대 농산물 물류 허브시장으로 발전 될 것을 예상함
 - 배송 반경은 약 1km로 배후 소비지로서 흑룡강성과 극동러시아 지역을 고려하고 있음
 - 올해 안에 1단계 건설 완료를 목표하고 있음

< 하얼빈시의 XiangFangQu >



자료 : www.hjnews.cn, 2013.6.18.

< Dili농산물센터 조감도 >



黑龙江地利农产品物流中心鸟瞰图

자료 : www.chinawuliu.com.cn, 2013.6.21.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Norwest Venture Partner, 인도 콜드체인 물류회사 Snowman에 지분투자

- 인도 콜드체인 물류회사 Snowman Logistics¹⁾, 유상증자를 통해 1,040만 달러 투자유치
 - 실리콘 벨리 소재의 벤처 캐피탈 전문 투자사인 Norwest Venture Partners²⁾는 인도 콜드체인 전문 물류회사인 Snowman Logistics의 주식 14%에 달하는 유상증자 주식을 1,040만 달러에 매입
 - Snowman은 주로 북인도에서 유명 식품 회사인 베스킨라빈스, 유닐레버, 피자헛 등의 고객사를 상대로 18곳의 지역에서 158대의 냉장·냉동 차량으로 파렛트 33,400개 규모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5년 인도 콜드체인 시장은 연간 최대 53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 예상
 - Norwest Venture Partners는 이번 투자가 인도에서 Snowman의 주 사업영역인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의약품 등의 일용소비재(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급격한 소비 증가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밝힘
 - 인도 컨설팅 전문회사인 Technopak에 따르면 2014~2015년까지 인도내 콜드체인 제품의 보관 및 수송 시장이 31억~5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 콜드체인시장 성장에 따른 콜드체인 물류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 Snowman은 1997년 인도의 Amalgam Group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곧이어 일본의 세 회사(미쓰비시 주식회사, 미쓰비시 물류, 니치레이 물류그룹)를 통해 인수되었고 다시 인도 물류 회사인 Gateway Distripark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겪음
 - 그동안 인도의 콜드체인의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IEP와 IL&FS 같은 사모펀드를 통해 인도 콜드체인 물류회사인 Swastik Road lines, JICS Logistics에 투자가 이루어짐
 - 작년에는 IDFC 펀드를 통해 인도의 물류회사 Straragi Warehousing과 Collateral Management Ltd의 콜드체인 진출에 투자됨

자료 : www.vccircle.com, 2013.6.14.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1)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에(BSE)에 상장된 인도 6대 물류회사 Gateway Distriparks가 주식의 51퍼센트를 소유한 자회사로 인도 방갈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콜드체인에 특화되어 있음

2) 실리콘 벨리에 본사를 두고 약 37억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사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0여개의 회사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음

물류시장동향

□ DP World, JNPT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MOU 체결

- 6월 19일, Jawaharlal Nehru Port Trust(JNPT)와 DP World의 자회사인 Nhava Sheva Gateway Terminal은 JNPT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MOU를 체결
 - 본 MOU는 부두 330m와 27ha 규모의 컨테이너 처리 시설 개발이 포함되며, 투자비용은 Rs.600-crore¹⁾임
 - JNPT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인도 컨테이너 물동량의 44%를 처리
 - 본 개발을 통해 JNPT의 처리능력은 80만 TEU가 증가될 것이며, 2015년 12월 공사완료 후 DP World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17년 간 운영할 예정임

자료 : www.thehindu.com, 2013.6.19.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 FedEx, Supaswift의 아프리카 내 운영사업 부문 인수계획 발표

- FedEx는 현재 아프리카내 FedEx 서비스 공급업자인 Supaswift의 운영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계획 발표
 - Fedex는 현재 Supaswift가 운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잠비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내에서의 운영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계획 발표
 - 보츠와나와 나미비아에 있는 Supaswift의 운영사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수협상 진행 중
 -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Supaswift의 운영사업 부문은 FedEx 운영사업 부문으로 흡수되어 FedEx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
- FedEx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서비스 포트폴리오 다양화 기대
 - 추가적인 인수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경우, FedEx는 해당 7개 국가에서 Supaswift가 보유하고 있는 39개 시설과 1,000여명의 인력을 확보
 - 기존 전 세계 220개국 이상의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을 연결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확장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과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 확보
 - FedEx는 이번 인수를 통해 Supaswift의 아프리카 내 네트워크와 기존 Fedex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제공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계속하여 유지할 것으로 기대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3.6.21.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0525@kmi.re.kr)

1) 60억 루피 = 1,168억 8,000만 원 (환율기준일 2013.6.24.)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 및 해외의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분석 수행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현지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 + 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최대)	70%	60%	50%	1억원

< 지원 예시 >

- 타당성 조사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9천만원 : 최대 5천4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2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2. 6. 7(금) 09:00 ~ 7. 8(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이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회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3년 7월20일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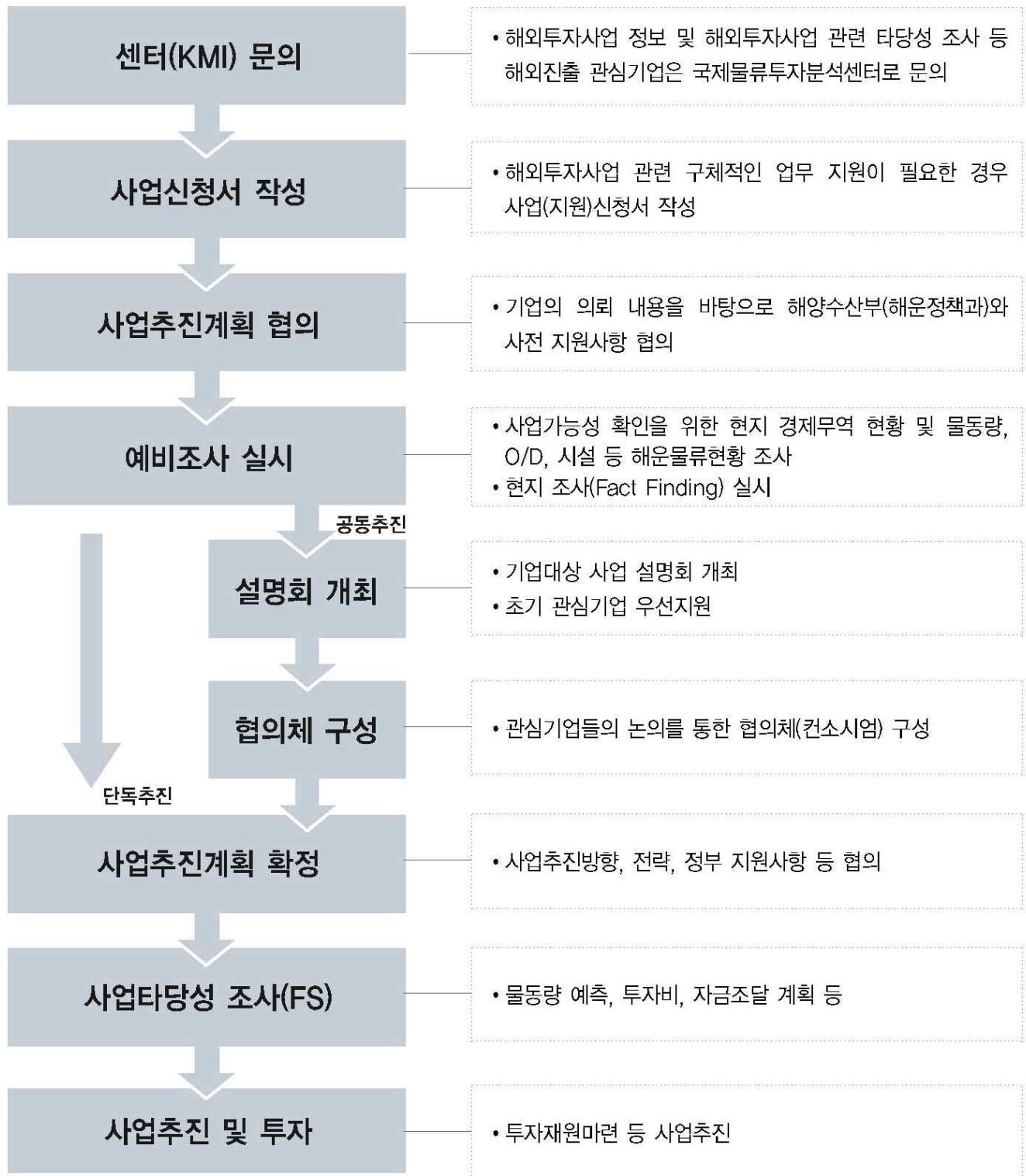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